

2018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들을 누림

메시지 16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말씀: 빌 4:5-9, 11 하-13

- I. 빌립보서 4 장 5 절부터 9 절에 있는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빌 1:19-21 상, 2:5-13, 3:8-10.
- A. 바울은 관용과 염려 없음을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첫째가는 두 방면들로 여겼다.
 - B. 사탄으로부터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이며,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마 6:22-34.
- II.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빌 4:5.
- A.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한다. 관용은 실지로 넘치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다—빌 1:19-21 상.
 - 1.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며,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심지어 우리가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 a. 관용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배려와 순종과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이 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의와 거룩도 있을 것이다.
 - b. 관용은 또한 자기 절제와 중용과 온화함과 이해와 동정과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과 주님을 양망함과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적이심을 인정하는 미덕도 포함한다—비교 고후 12:7-9.
 - 2. 관용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적합한 사람이며 그의 행위는 항상 적절하다—비교 고후 6:1 상, 10:1, 빌 1:19, 사 11:2.
 - a. 우리가 관용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그것을 언제 말할지에 관해 온전히 알 것이다—사 50:4-5, 골 1:28, 잠 25:15.
 - b. 관용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대하 1:10.
 - B.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으로서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므로 바울에게 삶은 관용이었다—빌 1:21 상.
 - 1.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고,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 2. 오직 주 예수님만이 관용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온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으시다—눅 24:15-19, 28-31, 마 17:24-27, 요 11:20-34.

3. 우리의 관용을 알려지게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 C. 관용에 관해 말한 직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했다.
 1.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비교 롬 10:8-13.
 2.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마 1:23, 출 33:14.

III.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빌 4:6-7

- A.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이다. 이 평안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 B. 빌립보서 4 장 6 절의 ‘ 모든 일에서’ 라는 말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다른 일들을 가리킨다.
- C.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한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
- D. ‘ 하나님께’ 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 하나님께’ 의 의미는 ‘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이다.
- E.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되신 평안인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 F.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신다—비교 사 30:15 상.
- G.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IV. “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빌 4:8.

- A. 이 미덕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속에서부터 살아내어지신 하나님의 속성들의 표현이다.
- B. 이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여섯 가지 지배적인 방면들이다.
 1.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참되다. 즉 가장함이나 거짓됨 없고 윤리적으로 진실하다.
 2.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다. 즉 존경할 만하며, 존귀하며, 고상하며, 충실하며, 무게있고, 존경할 가치가 있다—딤후 3:8, 11, 딤후 2:2, 비교 롬 9:21.
 3.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바르다—빌 3:9.
 4.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 즉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다—마 5:8, 딤후 5:1-2.
 5.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 즉 사랑할 만하며, 상냥하고 애정을 느끼게 한다.
 6.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평판이 좋다. 즉 명성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며, 매력있고, 마음을 끌고, 친절하다—호 14:7.
- C. 미덕과 칭찬은 앞의 여섯 항목들의 총합이다. 그 여섯 항목에는 모두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마 5:16.
- D.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살기 위해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비교: 창 1:26.

V. “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1 하-13

- A. 바울은 모든 종류의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로서 그리스도를 취했다—빌 4:4.
- B. 12 절의 ‘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는 직역하면 ‘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이다. 여기에서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골 2:2, 엡 3:3-4, 5:32.
 - 1.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아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행 9:3-19, 25-28, 22:6-21, 13:1-4.
 - 2.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빌 1:20),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12), 교회생활을 하는(빌 1:8, 19, 2:1-4, 19-20, 4:1-3) 비결을 배웠다.
- C. 빌립보서 4 장에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다—빌 4:13, 영한 동번 찬송가 564 장.
 -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그분을 적용했다.
 - a.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질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적용했다—빌 3:9.
 - b. 이 그리스도는 실제이시고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늘 유용하시고 우세하시다—빌 4:5 하, 찬송가 400 장 (영한 동번 찬송가 539 장).
 - 2.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말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간 미덕으로 취해 삶으로써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제한 없는 위대함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빌 4:8-13.
 - a.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만족한 생활을 살 수 있고,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빌 4:11-12, 8.
 - b. 이 미덕들이 있는 생활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 3.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으로서 체험하려면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 a.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들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성한 용서를 체험해야 한다—히 9:14, 10:19, 22, 출 24:8, 마 26:28.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고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 들어간 그분이 생명주시는 영, 즉 기름부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요일 2:15-16, 20.
 - c. 우리는 승천이 무엇이지를 알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들 안으로 승천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속 생명과 분위기에 있어서, 하늘들 안에서 살고 있다—엡 2:6, 히 8:1-2, 4:14-16, 7:25-26.
 - d.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실행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얼굴 빛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Psa. 42:5, 11; 80:1, 3, 7, 19.